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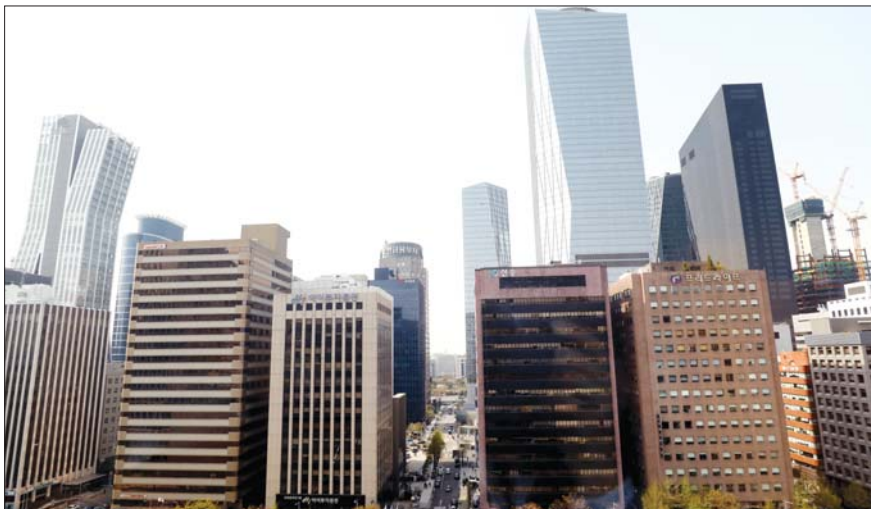
금융당국 압박·인력감축 등… 증권사 “성과급 기대 어려워”

올 상반기 평균급여 전년비 20% ↓
NH투자증권, 35.1% ↓… 가장 큰 폭
영업익·순이익 1兆 넘는 곳 없을 듯
IB 침체 장기화… 내년까지 이어져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대폭 줄인 데다,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의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급 시즌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와 이낸싱(PF) 리스크로 대규모 총당금을 적립한 것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예년만큼의 성과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한국투자·KB·NH·삼성·하나·신한·메리츠·키움·대신증권 등 10대 증권사의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은 781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특히 삼성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곳은 NH투자증권으로 1억11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35.1%가량 줄었으며, 키움, 한국투자, KB증권 등도 2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8450만원에서 6127만원으로 27.49%, 한국투자증권은 1억2076만원에서 8882만원으로 26.44%, KB증권은 97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22.68% 감소했다. 이는 올해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상반기 성과급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시스

여기에 증권사들이 몸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데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과도한 성과급이나 위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검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금감원은 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 현황과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다만 증시 활황과 부동산 업계 호황 등이 맞물리며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익과 IB(기업금융) 수익이 모두 증가한 2년 전인 2021년도에 따른 기저 효과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상 성과급 등의 급여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2021년도 실적이 반영된 전년 급여와 지난해 실적이 반영된 올해 급여만 보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됐고 이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거래대금 감소, 부동산 PF 관련 대규모 총당금 적립 등으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1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이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의 감원과 허리띠 졸라매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 3분기 10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9개사는 모두 전년 동기보다 임직원 수가 감소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급 자체가 IB, 자산관리(WM)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조금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IB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특출난 사업 부분이 없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IB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해외직구 수혜… “서비스 차별화로 성장”

metro 관심종목

CJ대한통운

주가 18.7% 급등… 10만원 선 넘어
알리익스프레스 등 제휴로 물량 확대

최근 해외 직구 배송 시간 단축으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전담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올해 3분기에는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 27일~12월 1일) CJ대한통운의 주가가 18.7% 가량 급등하면서 10만원 선을 넘어섰다. 1일 기준 종가는 11만3800원이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차이나이오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 물류량이 크게 올랐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은 1분기에만 346만개에서 3분기 904만개로 급증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특수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0만개 이상으로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 성장 화주들을 선점하고 있다”며 “택배 사업에서 풀필먼트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비중은 3분기 6%로 아직 낮지만 성장성 높은

고객들을 선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3분기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은 1년전과 대비해 6.8% 줄어들었고, 시장 점유율도 43.7%로 전년 동기보다 2.6%p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48억원으로 오히려 1년 전 대비 15.9% 상승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3.6% 상회한 성적이다. 최연구원은 “택배시장은 후유증 많았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가격 경쟁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차별화를 기본 전제로 우량화 주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해외 직구 물량에 대해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당분간 CJ대한통운이 유일하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인천 글로벌물류센터(GDC)와 도착 보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온라인 물의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택배 물량이 재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알리익스프레스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됐기 때문에 1~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CJ대한통운을 통하면서는 3~5일 내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성장세도 주목된다. 올해 3분기 CJ대한통운의 이커머스 부문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채권개미’에 투자위험 안 알려

채권 평가잔액 45.8억… 직접투자 ↑
증권사, 민평금리 등 제대로 고지 안 해
금감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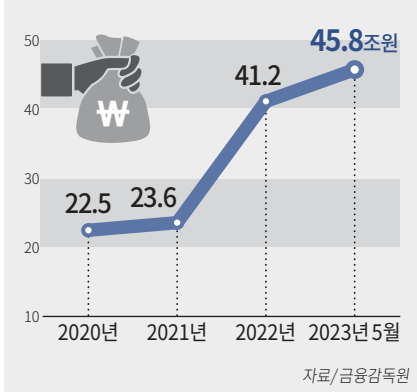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와 시장금리에 민감한 장기물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가장 기본이될 금리나 거래비용,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랩이나 신탁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연초 이후 5월까지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의 비중이 83.5%로 가장 컸다. 해외채권 장외거래와 국내채권 장내거래가 각각 8.3%, 8.2%를 차지했다.

연별별로는 6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절반이 넘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다만 올해 들어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개인투자자 채권 직접투자 현황



온라인(59.6%)이 오프라인(40.4%)을 앞질렀다.

이와 함께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단기사채의 거래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장기물과 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었다”며 “증시 약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력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채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된 것도 소액투자를 활성화시켰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 채

권을 판매하면서 민평금리나 거래비용,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인 민평금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매매금리나 매매단가만 안내했다.

거래금액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돼 거래비용을 별도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투자자가 1억원의 채권을 매수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에 대해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투자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기가 긴 채권(10년·30년물 등)은 만기가 짧은 채권(1·3년물 등)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금감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DB금융투자, 고객지향 MTS 모드 선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알파증권’ 모드 출시

DB금융투자는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대폭 개선해 고객지향적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모드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알파증권’ 모드는 기존의 일반·심플 모드와는 달리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시세를 홈 화면에 함께 배치해 주문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채권에 관심이

높아진 고객 성향에 맞춰 강화된 채권 정보를 제공한다.

채권의 예상수익이나 채권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 확인 중 바로 디지털PB에게 투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DB금융투자는 이번 알파증권 모드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주식, 채권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권을 런칭하고, ‘더블’이라는 명칭의 서비스와 혜택이 포함된 화면을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한화투자증권, 연금자산 1兆 기념 이벤트

순입금액 따라 백화점 상품권 증정

한화투자증권은 연금자산 1조원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상품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연금저축 순입금액 300만원 이상 시 최대 70만원, IRP 순입금액 3백만원 이상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원관희 기자